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시연합회장에 장현 씨



장현 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시 연합 회장에 선출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분야까지 망라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과 운영, 민과 관의 협치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온 단체다. 광주시 연합회에는 3000여명의 위원이 소속 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대, 아세안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조선대는 최근 아세안(ASAE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출신 우수 이공계 학생들을 초청, 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광주시 핸드볼협, 초교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연수



광주시 핸드볼협회 운동택 수석부회장 등 스포츠 강사들이 최근 남구 빙여울초등학교 열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연수회'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 핸드볼협회 제공>

전남대 여수캠퍼스, 동중국해서 해양조사 실습



전남대 여수캠퍼스 ICT7기반 수산자원관리연구센터(센터장 서호영)는 오는 10일까지 6일간 현장맞춤형 수산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조사 3차 실습을 동중국해에서 전개한다. <전남대 제공>

인사

◆아시아문화원 인사

◇전보 ▲교육사업본부장 겸 콘텐츠사업본부장 박남희 ▲경영혁신 본부장 기영준 ▲혁신평가팀장 김현서 ▲경영지원팀장 조정호 ▲ACT 기획팀장 양동기 ▲공연구획팀장 오재환 ▲전시기획팀장 조정란 ▲교육콘텐츠개발팀장 이호석 ▲교육사업팀장 윤지선 ▲홍보마케팅팀장 손선희 ▲고객지원팀장 이성재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정상균(전 무등산CC 사장)·최복숙씨 차남 호남군, 김은곤·김영자씨 장녀 정영양=10일(토) 오후 1시 목포 남악신도시 스카이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 ▲김섭형(전 광주동성중 교장)·심준보 씨 차남 우일군, 양인형씨 장녀 유정양=광주 피로연 17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S타워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 결혼식 31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 화이트베일 4층 W 홀. ▲김혁중(광주대학교 총장)·송숙남씨 장남 동진군, 송기원·김춘환씨 장녀 은수양=24(토) 낮 12시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 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3일(화) 오후 6시30분 지원회의실3

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20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목)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와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

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 6개월간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제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하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광주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대안교육 '래미학교' 가을학기 신입생=의욕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14~18세 청소년 21~22명 학생 및 학부모 개별상담 후 23일 합격자 발표. 062-375-1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드론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서운동씨 별세, 서성천(CMB 광주방송네트워크혁신팀장)씨 부친상=발인 9일(금) 오전 8시 광주 만평장례식장 302호 062-611-0000.

“37년만에 되찾은 수영 인생 행복해요”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참가 70년대 수영스타 최연숙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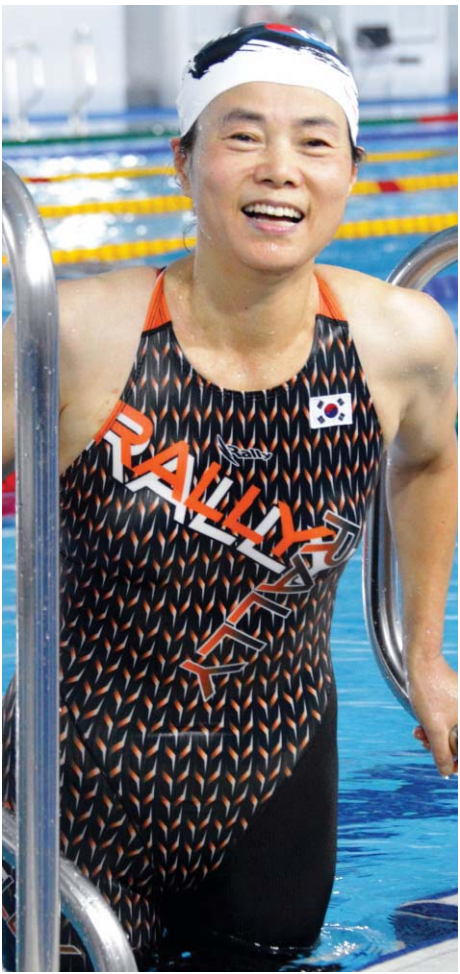


8개 종목서 32차례 한국新 경신
1982년 선수 정점에서 은퇴
2년전 뇌출혈 투병 극복
자유형 5개 종목 참가 신청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197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 여자 수영계를 주름잡았던 수영스타가 광주세계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중년을 넘겼지만 동호인 잔치인 마스터즈 무대이기 때문에 도전에 나섰다 한다. 주인공은 최연숙(60)씨. 그는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뒤 투병 과정에 있어서 더욱 감동

을 주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그녀는 8개 종목에서 무려 32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보인 수영 스타였다. 한국 수영계에서 70년대 전반부가 조오련의 시대였다면 후반부는 최연숙의 시대라는 평가도 받았다. 최씨는 이번 대회에 자유형 50m, 100m, 200m, 400m, 800m 등 5개 종목에 참가를 신청했다. 1982년 마산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은퇴한 이후 수영장으로 되돌아오는데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최씨는 이번 대회 참가 의미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초기 은퇴와 결혼, 투병 등을 거치면서 잠시 내려놓았거나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확인해 찾아가는 대회라는 것이다. 최씨는 “내 능력을 절정에서 터뜨려보지 못하고 은퇴했다”면서 “그 점이 아쉽고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등 더 큰 무대에서 배우고 싶었지만, 주변의 만류와 외면으로 유학의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며 “이후 동기를 상실해갈

즈음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최씨는 늘 물이 그리웠고 연젠가 되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했다. 다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이다. 특히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30여 시간 만에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투병 생활로 다시는 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씨는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 준비 겸 테스트 과정으로 지난 6월 용산마스터즈회장대 50m 출전을 거쳐 이번에 참가했다. ‘앞뒤 보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라’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대회출전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최씨의 몸은 정상아 아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만류했다고 한다. 가까스로 승낙을 받았지만 물을 발로 차지 못해 거의 손으로 수영을 하는 상태다. 최씨는 “지난 6월부터 하루 40분씩 훈련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대회의 목표를 800m 완주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수영을 계속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카프카 유고’ 11년 법정싸움 끝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도서관, 편지·원고·그림 등 공개

이스라엘이 오랜 법정 다툼을 거쳐 20세기 대표적인 실존주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1883~1924)의 유고를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스라엘국립도서관은 7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카프카가 생전에 직접 손으로 쓰거나 그린 편지, 원고, 그림 등을 공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카프카의 유고는 스위스 취리히의 은행에 보관돼 있다가 스위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 2주전 이스라엘국립도서관에 도착했다. 이스라엘국립도서관은 카프카의 절친한 친구였던 작가인 막스 브로트(1884~1968)의 자필 원고도 함께 받았다. 카프카는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을 통찰한 소설 ‘심판’, ‘변신’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문호다. 카프카의 유고를 받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08년 시작했다. 이스라엘국립도서관은 카프카의 원고를 갖고 있던 두 노인 자매 에바 호페와 아니타 바이슬러를 상대로 유작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에 살면서 독일어로 작품을 썼던 유대계 작가 카프카는 1924년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쓴 원고를 모두 불태우라고 유언했지만 그의 친구이자 극작가인 브로트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브로트는 독일 나치의 체포 침공을 피해 카프카가 남긴 원고와 기록물 등을 갖고 1939년 이스라엘 건국 전의 텔아비브에 정착했다가 1968년 사망했다. 브로트는 사망하기 전에 수천 장이나 되는 카프카의 원고와 기록물을 자신의 비서인 에스테르 호페에게 넘겨주면서 공공 기록보관소에 전달해달라고 유언했다. 그러나 에스테르 호페는 브로트의 유언을



이스라엘국립도서관이 스위스의 은행에서 넘겨받아 공개한 카프카의 그림.

지키지 않았고, 2007년 숨질 때 카프카의 원고와 기록물을 70대의 두 딸 에바 호페와 아니타 바이슬러에게 물려줬다. /연합뉴스

전남어촌특화센터, 큰징거미새우 기술 이전 교육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최연수)가 8일 전남도해양수산물과 학원장장 민물고기 연구소에서 '2019년큰징거미새우 기술이전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공모로 선정된 교육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6주간 전남도해양수산물과 학원(원장 오희남) 소속 해양연구소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큰징거미새우 양식 이론, 질병 관리, 종자생산이론, 먹이생물이론, 양식장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과목을 이수할 예정이다. 또 전국 각지의 양식장을 찾아 이론과 현장실습도 병행한다. 올해부터는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의 선진연구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상대로 유작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이영중·유민정씨 부부 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14년 동안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해온 ‘지우네 농장’ 이영중(44·왼쪽), 유민정(40)씨 부부가 농협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았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비야농협은 “이씨 부부가 지난 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시설 원예작물을 14년 간 키운 이들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황토유황액비를 자체 생산하고 주위 농업인에도 공급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앞장서고,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본보기가 됐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이씨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 세대 간 가교가 돼 행복한 농촌



이 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965년부터 농협이 수여하고 있는 이달의 새농민상은 새농민운동 자립·과학·협동 3대 정신을 실천하는 선도 농업인 부부에게 주는 상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